총무원장 자승 스님 추천사

흔히 불교는 자력종교라고 합니다.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구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구원의 길, 열반의 길을 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을 중심의 가르침으로 삼을 때는 그런 특성이 더욱 두드러지기도 합니다.

임제선사께서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선이 갖는 역설입니다. 부처님과 조사님에 대한 확고한 신심 아래 그 마지막 끈마저 내려놓아야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수미산보다 높은 불보살님과 조사님들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랜 세월 선사의 말씀이 수행의 치열함을 일컫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돼 왔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자력종교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기도와 신심이 청정한 마음으로 원력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방편인데도 의도하지 않게 등한시 할 우려가 있습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의 근간은 돈독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 어떤 수행이나 깨달음도 있을 수 없습니다. 불보살님에 대한 금강석 같은 믿음이 있어야만 그것을 넘어서 마침내 부처님이 되고 대자유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믿음은 도(道)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믿음은 온갖 선법(禪法)을 길이 기르며, 의심의 그물을 끊고 애욕에서 벗어나 열반의 무상대도를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이 주최하고 법보신문과 불교방송이 주관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1회 신행수기 공모는 기도와 신심이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핵심임을 공표하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에 직면해 불보살님의 지혜와 가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들은 불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새로운 신행문화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고통에 직면한 시민들이 불교에 귀의하게 되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리고 애꿎은 생명들을 떠나보낸 세월호 사고는 우리 사회를 뼈아픈 통찰과 참회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속절없이 잃어야했던 비통함을 쉬이 털어낼 수 없고, 이를 위로하는 많은 이들 또한 슬픔의 무게를 함께 나누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책에 담긴 사연에서 슬픔을 나누려는 위로를 만나게 됩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희망의 순간을 발견합니다. 고통을 이겨내고 삶의 희망을 갈구했던 많은 사람들의 신심에 감화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의 삶에서 실천한 감동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번 '신행수기'가 절망을 마주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지한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하고, 향기로움을 베풀 수 있는 소중한 법보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행수기를 주관한 법보신문과 불교방송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생동감 있는 신행지침이 되어줄 신행수기 공모전이 매년 훈훈한 결실을 나누며 진전하기를 기원합니다.